

가해 기초자료

# 연중 제123주일

사랑의 파수꾼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에제키엘

## 성전

: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

그러나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가 버린다.

## 에제키엘

: 첫 번째 유배 때 끌려갔던 사제들 중 하나,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더욱 강하게 고발하며(우상 숭배, 부패 정치 등) 지금보다 더 큰 파멸이 닥치리라고 예고한다.

“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의 죄가 너무나 크다. (에제 9,9)

”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 완전 파괴, 두 번째 유배로 에제키엘의 예언은 완전히 실행된다.

## 예언자의 소명

###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

: 이스라엘 집안에 **하느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소명

### 예언자 = 말하는 자

: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하며,**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느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리라는 **희망도** 함께 이야기한다.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시편 95편-오늘 화답송)

”

### 예언자의 목소리는 오늘날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울려 퍼지고 있다.

## 예언자 구분법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목소리

: 무엇이 예언자의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신의 삶을 걸고 나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의 소리가  
예언자의 소리일 확률이 높다.

예언자는 언제나 고통과 비난을 무릅쓰기 때문이며,

또한 참된 예언자의 말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 신약의 참된 예언자들

“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마태 18,15-16)

”

제자들은 모두 에제키엘 예언자처럼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의 소명,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지니고 있다.

“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

”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주님의 기도 중).  
 선택의 순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매듭을 풀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신다.

## 사랑은 율법의 완성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로마 13,9)

”

제자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가 무엇인가의 매듭을 푸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 사랑의 파수꾼

죄를 짓는 형제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그가 죄에서 돌아서도록  
사랑으로 권고하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의 계명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는, 특히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해의 삶을 추구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파수꾼, 참된 예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18,18)

”